

**비상경제본부 회의 결  
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(4.10.)**

- 지금부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중동전쟁의 영향 속에서도 우리경제는 비교적 굳건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
  - 2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.  
3월도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.
- \* 경상수지(억불): (26.1)132.6 **(26.2)231.9** / 무역수지(억불): (26.1)87.1 (26.2)153.8 **(26.3)257.4**
- 미국과 이란간 휴전합의로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이 다소 진정되는 등 중동전쟁도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했습니다.
  - 그러나 아직까지는 향후 협상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공급망 충격과 그 영향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.
- “천둥이 멈추었지만, 아직 먹구름은 가득”한 상황이라고 해야할 것 같습니다.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.
  - 핵심품목의 수급, 가격동향과 산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공급망 불안에 대한 기업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.
- 이와 함께, AI 대전환, 녹색 대전환 등 초혁신경제 구현, 지방주도 성장 및 양극화 극복 등 우리경제 대도약을 위한 구조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.

**[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] [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조치 ]  
[ 중동전쟁에 따른 산업별 영향 ]**

- 오늘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, 주요 산업별 영향에 대해 논의합니다.
  - 먼저, 우리나라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사 및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.
  -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을 공급망안정화기본법상 위기품목으로 지정(4.8일)했고, 보건의료·생활필수품에 대해 나프타 등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.
  - 공급망 핫라인을 통해 현장의 애로해소도 밀착 지원하겠습니다.

- 추경의 신속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.  
오늘 본회의를 통과해 필요한 곳에 하루라도 빨리 닿을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.
- 지난주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개선에 이어, 오늘은 중동전쟁으로 공공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기업들의 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.
  - 먼저,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종전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후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, 90일 이내에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  -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납품기한을 연장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겠습니다.
  - 4월부터는 철강재 등 주요 건설자재에 대한 가격조사 주기를 기존 반기별에서 매월로 단축하여 즉시 원가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.

[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·관리체계 개선방안 ]

[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 ]

- 다음으로,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최근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정보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.

\* SKT·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('25.4, '25.11), 국세청 가상자산 유출사고('26.2) 등 발생

- 먼저 정부, 공공기관,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합니다.
  - 각 기관별로 보유중인 가상자산의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설치 또는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.
  - 가상자산의 취득부터 보관, 사고대응 등 단계별 준수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쏠 공공부문에 적용하겠습니다.
  - 아울러, 정부의 가상자산 보유 확대에 대비하여, 가상자산을 국유 재산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.

- 개인정보 등 기업이 보유한 정보를 해킹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정보 보유기업에 대한 관리와 인증도 강화합니다.
  - 국민생활 파급력이 큰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인증을 의무화하고, 인증기준을 강화합니다.
  - 사고기업의 경우 사고원인과 조치현황 등을 집중 심사하고 중대한 침해사고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.
  
- 그러면,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.  
(개보위 모두발언)
  
-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